



NEWS LETTER

2019년 5월 7일 Vol. 342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본격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5일 2019년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을 위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해 조현숙 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 심홍순, 손동숙 고양시의원, 안선희 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 주요 관계자 및 동국대학교 조성민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해원 병원장 외 수혜기업 대표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권범선 개방형 실험실 구축 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을 위해 병원 직속의 사업단을 구축 했으며, 창업기업 입주와 협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해원 병원장은 “보건의료분야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1차 연도는 우수한 연구인력 및 시설, 장비 인프라를 개방하고 병원의 문턱을 낮추겠다.”며, “참신한 창업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하고 지속해서 운영이 가능한 창업보육 지원과 플랫폼 구축 사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 날, 고양시 연등축제 참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5월 1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 날을 앞두고 고양시 화정동 중앙공원에서 개최된 연등행사에 참석했다.

고양시 사암연합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전했다.

‘고양연등축제’는 지역 발전을 기원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연등 문화축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이 함께했으며, 봉축 법요식과 축하공연 등을 진행해 시민과 불자들의 축제 한마당이 됐다. 이어, 시민들은 화정동 중앙공원을 출발하여 화정 동 일대 제등행렬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올 한해 건강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연등을 밝혔다.



교직원 불자 연우회, 영주 부석사로 춘계 사찰순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 연우회는 지난 4월 21일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에서 춘계 사찰순례를 진행했다.

부석사(浮石寺)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세워진 화엄종 사찰로,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봉황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찰 순례에는 채석래 연우회 회장을 비롯해 지도법사 덕유스님, 김동일 한방병원장 등 연우 회원 140여 명이 함께했다.

연우회원들은 이날 문화해설가를 통한 부석사의 깊고 오래된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부석사와 함께 한 사진 콘테스트 및 퍼즐게임을 통해 일상을 벗어나 정서적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가져 크게 호응을 얻었다.



잠복결핵검진 및 수두, 홍역 항체 검사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위험부서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및 수두, 홍역 항체 검진을 시행했다.

잠복결핵이란 결핵균에 감염되었지만 현재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두와 홍역은 공기 중에 부유하는 감염원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 될 수 있는 질환으로 특히, 홍역은 면역력이 없는 사람과 홍역 환자가 직접 접촉했을 때 10명 중 9명이 감염되는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다양한 감염질환을 접하는 의료진들의 주기적인 검진과 치료 및 예방접종을 통해 의료진과 내원객들의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스토리

수호천사 심장초음파실 정경은 선생님!! 평생 제 은인입니다.

이른 새벽 팔순이신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동국대학교일산병원으로 구체적인 검사와 치료를 위해 내원했습니다. 팔순이지만 너무나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한순간에 쇠약해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의지하시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 이곳저곳을 검사를 위해 방황 하고 있는데 뒤에서 “도와 드릴까요~?”라며, 너무나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있었고 너무도 친절히 저를 도와 어머니의 휠체어까지 직접 밀어주시며, 걱정스럽고 따뜻한 안심의 말과 함께 검사받는 곳까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감동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대는 병원에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제게는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계속 병원 진료를 다녔고 마침 그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검사실과 가까운 심장 초음파실에서 근무하셔서 또 뵈게 되었고, 정경은 선생님이라는 이름도 명찰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분이 동국대일산병원에 계신가요? 저의 이감동과 감사함을 글로써 남깁니다. 그때의 친절한 격려와 위로가 힘이 되어 지금 저희 엄마와 가족들이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정경은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